

문예지, 왜 말이 많은가

정진규

시인 · 「현대시학」주간

문예지가 말이 많다. 무엇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징표이다. 우선 드러난 일로는 금년 들어 그동안 지급되어 오던 문예진흥원의 원고료지원금 중단사태를 들 수가 있지만 꼭이 그런 경제적 이유에서만은 아닌 듯하다.

우리 신문학 초기에는 '3호잡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수명이 짧았고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이 없는 문예지의 숙명이지만, 그 순수함과 향기로운 누구도 부인 못할 오묘한 것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엔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다. 고향냄새도 나지 않고, 권위도 느껴지지 않고, 이 땅의 문학과 정신사를 이끌어가는 진지한 얼굴의 뱃사공도 오늘의 문예지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편집자의 태도가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편집자들을 그렇게 몰아간 이 시대의 또 다른 현실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문예지의 이완을 가져온 것은 문인들 자신이었다는 생각이다. 우선 수천명에 달하는 문인들의 숫자가 문제이다. 기존의 문예지만으로는 이같은 숫자의 문인들에게 공평한 발표기회를 부여하기란 어렵게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자연 알기알부의 불평이 늘 따라다니게 되었고, 이를 좀 모면할 셈으로 있어진 사람 위주의 안배주의 편집태도는 무정견, 무계획, 작품의 질적 저하를 불러왔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거기에 이같은 물량을 수용할 수 없는데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지만, 90년대 들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문예지들의 무잡한 편집태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작품은 없고 졸렬한 처세주의만 가득가득 부끄럽게 넘치고 있음을 보여주기로 실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졸속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래서 문예진흥원의 원고료지원금 중단도 있어진 게 아닌가란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또하나 60년대 이후부터 이미 그러한 징후는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념의 분화, 비평의 편중에 따른 파벌짓기의 온상으로 문예지가 동원되어 왔던 점도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다. 진정한 문학운동, 예꼴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동안 우리 문학을 주도했던 것은 작품이 아니라 비평이었다는 인상이 짙다. 선행된 이론에 의한 도식화가 문제였다. 심지어는 요즘 작품들은 비평에 종속된 하위개념의 것이라 개탄마저 없지않다.

이밖에도 앞서 지적한 원고료지원금 중단에 따른 경제력의 약화, 그것이 불러온 기획없는 편집, 작품의 질적 저하, 출판의 다양화와 물량의 확대·증가에 따른 문예지 기능의 희소 가치 약화 등을 그 이유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요즘의 문예지들이 향기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없어도 좋은 것이 문예지인가. 그건 그렇지가 않다. 보다 좋은 문예지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단행본에 의한 문학활동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선 문예지는 가장 현장적인 작품활동의 공간이란 점이다. 문예지는 한 작가나 시인이 아니라 여러 작가나 시인이 동시에 어우러져 하나의 세계를 그때그때 속도감 있게 벗어내는 심피니와 같다. 새로운 세계를 지니고 나타나는 신인의 무대라는 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세계의 발견이 중요하다. 진보를 위한, 전통의 수용을 위한 논의와 극복의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것도 문예지다. 앞서 지적한 모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리뷰 2 **잡지흥수시대의 季刊誌 총점검**
해제와 함께 소개하는 주요계간지 45종

독서서론 6 **읽기능력 증진과 출판의 역할**—김종희
책임기능력 배양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작품구상 7 **장편 「해저물 때 떠나리라」**—송우혜

서평 8 **권태환 외 「인구의 이해」**—최운식
양리 파울 「산업 및 일반경영관리론」—윤석철
9 **프로프 「민담의 역사적 기원」**—이재선
조규의 「鮮初樂章文學研究」—박노준

초점 10 **대중화 내세우며 변신하는 대학교지**
생활문화 교양지로의 탈바꿈 시도

뉴스 11 **일본도서유통현장 연수회**

취재기 12 **알마아타 한국 古書에 어린 민족혼**—박석태
국립푸쉬킨대학 도서관에 260종 900여권 소장

리포트 15 **신간도서 침체 속에 중판발행은 늘어**
출판협회 집계 '90 상반기 출판통계

이책 그 사람 16 **「지리산」** 퍼낸 김명수씨
「정치경제학강의」 번역한 박기봉씨
17 **「그래도 못다한 고백」**의 작가 박형서씨
「아니마, 혹은 여자에...」의 작가 조성기씨

화제의 인물 18 **무대위 20년 「출작품집」** 낸 국수호씨

서점가 순례 19 **합리적 경영으로 내실 기하는 광주 「나라서적」**

해외화제 20 **미국 유명주간지의 「휴가철 추천도서」**
「타임」 「비즈니스위크」 「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의 경우

교양논단 22 **후기구조주의 국내수용에 대한 반성**—강내희
후기구조주의는 과연 체제전복적 사상운동인가

세계의 출판 24 **새롭게 조명되는 미국의 반전운동·외**

독자서평 26 손영호/성상희/임윤정/이정은

28 **새로나온 詩集**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 (채호기)/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

표지사전/구분창

社告

본지 8월 20일자 정기휴간

여름철 정례휴가에 따라 「출판저널」 1990년 8월 20일자를 정기휴간합니다. 그에 따라 제68호는 1990년 9월 5일자로 발행하오니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월 5일자부터 더욱 새롭고 충실해진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